

老人의 스트레스에 대한 影響 變因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f stress and method in coping with stress
of old age

昌原專門大學 家庭管理科
助教授 崔 貞 惠

〈目 次〉

I. 序論	IV. 調査結果 및 論議
II. 理論的 背景	V. 結論 및 提言
III. 研究方法	參考文獻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ors which influence of stress.

Data were obtained from structured interviews conducted with 373 men and women who were 60 years over and living in Kyungnam. Data were analyzed through X^2 , ANOVA, T-TEST,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TION techniqu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

1. Stress of old age were showed over middle level. The domains of stress showed that health problem is first, later life problem is second, trouble of communication is third, dependency problem is fourth, alienation is last($p<.001$).
2. Of the variables health status, family type, economic status, self-esteem, mastery were significant with stress($p<.001$).
3. Of the variables sex, religious, self-esteem, mastery were significant of used method in coping with stress.
4. The most of effective variables of stress were mastery, health status, self-esteem.

I. 序論

1. 研究의 目的 및 必要成

본 연구는 노인의 스트레스 영향변인과 대처방법에 대한 규명으로, 노인의 질적 생활향상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老人人口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라, 그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어가고 있으며(경제기획원, 1988),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 역할감소 등으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의존욕구는 높아지고 있고, 노인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결과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노인문제 대책도 많이 연구되어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노인에게 야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여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여러 研究들에서 老人의 가족과의 관계는 노인의 生活満足度에 영향을 미치고, 老人의 고독감이나 소외에 대한 연구에서도 家族과의 관계가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Medly, 1976; Bengtson & Culter, 1976; Streib & Beck, 1980; Quinn, 1983; 박성연·최혜경, 1985).

이에 본 研究는 老人들이 家族과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가 어떠한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老人들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는 주로 어떤문제로 인한 것인지, 그 상태는 어느정도이며, 또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들이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 및 스트레스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며, 이는 老人의 質의 生活向上을 도모하는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2. 研究內容

본 연구목적에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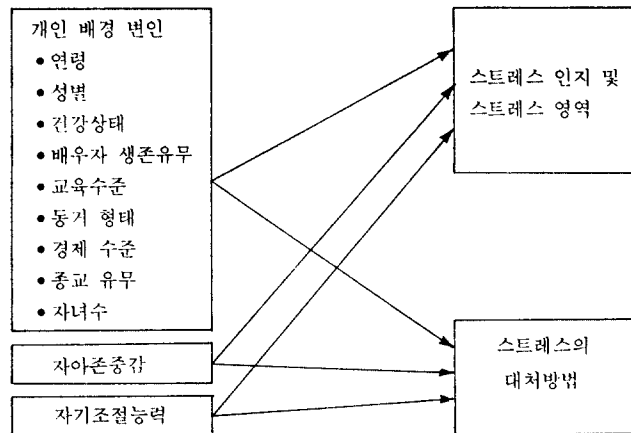
첫째, 老人들의 스트레스는 어느정도이며, 어떤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가?

둘째, 老人들의 스트레스에 있어서 영향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 영향변인은 무엇인가?

넷째, 어떤 변인이 老人들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변인가?

以上的 研究문제를 모형화 하면 다음(그림 1)과 같다.



II. 理論的 背景

1. 老人과 스트레스

現代社會의 주변환경의 변화는 人間の 생활에 생리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生活事件이 된다(Hamilton, 1987). 인간의 생활이 복잡해져 갈수록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사항도 늘어가고 있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研究는 각학문마다, 관점과 강조점이 달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인간생활에 대한 환경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研究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Hill(1958)은 스트레스원을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생활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스트레스원에 의해 발생한 긴장에 대한 가족의 반응상태를 가족스트레스라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老人의 스트레스란, 스트레스원에 의하여 발생한 긴장에 대한 老人의 반응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스트레스 연구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스트레스 상황과 정도, 노인이 어떤자원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가를 분석하여 노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Hill은 스트레스 상황 발생의 인과모델로 위기상황을 구조적으로 파악되는 ABCX 모델*을 제시하여 가족스트레스 이론 형성에 기초를 이루었고 Burr(1980)는 ABCX모델을 수정하여 취약성과 재생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McCbbin(1983) 등은 Hill의 연구를 계승해서 Double ABCX 모델*을 설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면을 중시하여 위기에방과 적응의 일부로써 자원과, 위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써의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자원과 대처는 어떤 가족이 더 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예견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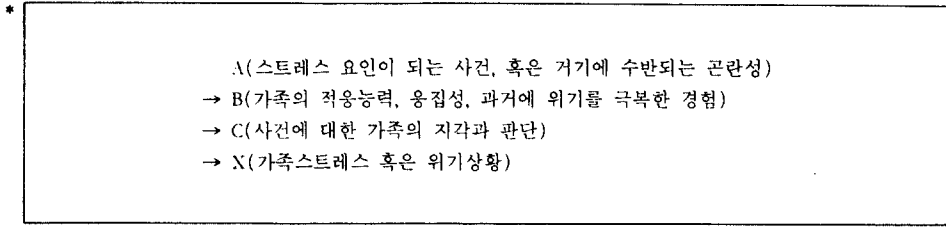
한편, 老人이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이유를 보면, 첫째, 산업사회

가 급속도로 발전해 감에 따라 가정의 구조및 기능의 많은 變化로 전통적 가족구조보다 핵가족이 산업사회에 알맞는 가족구조로 인식되는 추세이고, 이에 전통적인 사회관념에서 일생을 살아온 노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과거와 같은 가정생활이나 가족부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는, 생산향상을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에서, 정년퇴직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와 그로인해 老人을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존경과는 달리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노인에 대한 무시와 경시풍조가 노인이 생활에 적응해가는데 한층 어려움을 주고 있다. 셋째는, 老化에 따른 역할의 상실 혹은 변화, 신체및 정신건강의 퇴화, 자유로운 환경통제의 곤란등은 자연히 老人으로 하여금 他人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만들며, 老人의 의존성 문제의 해결을 노년기에 나타나는 역할상실, 능력감퇴, 사회적접촉의 감소와 고립등에 대한 완충지대의 역할은 가족구성원이 담당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보다 높은 정신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이나, 만약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노인의 스트레스는 더한층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여기서 老人의 스트레스 연구는 2가지 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첫째는 노인을 둘러싼 환경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객관적 상황이고, 둘째는 노인이 가진 자원과 대처능력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에게 주어지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사회적 역할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신체의 변화등)와 이를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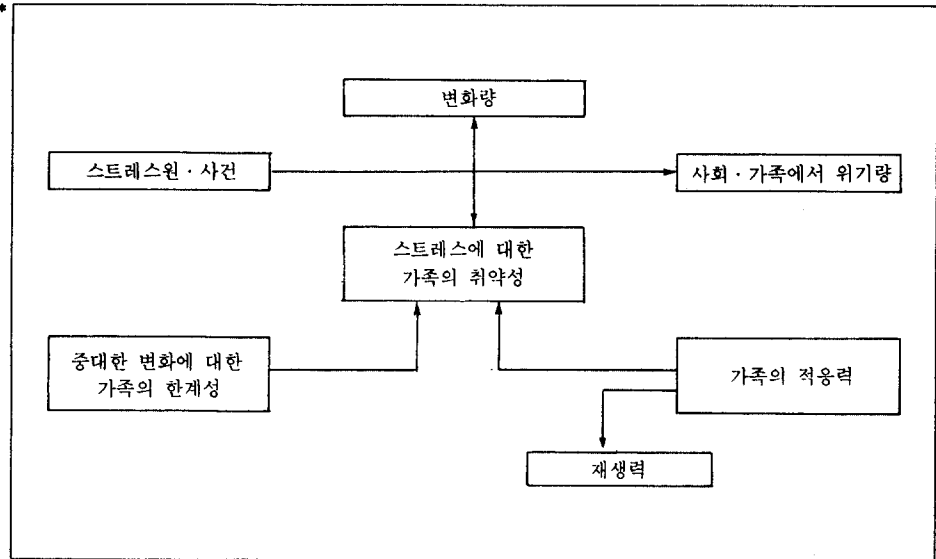
2. 老人의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변인

우리나라의 경우, 老人에 대한 다각적인 研究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주로 生活満足도에 관한 연구이고, 老人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老人의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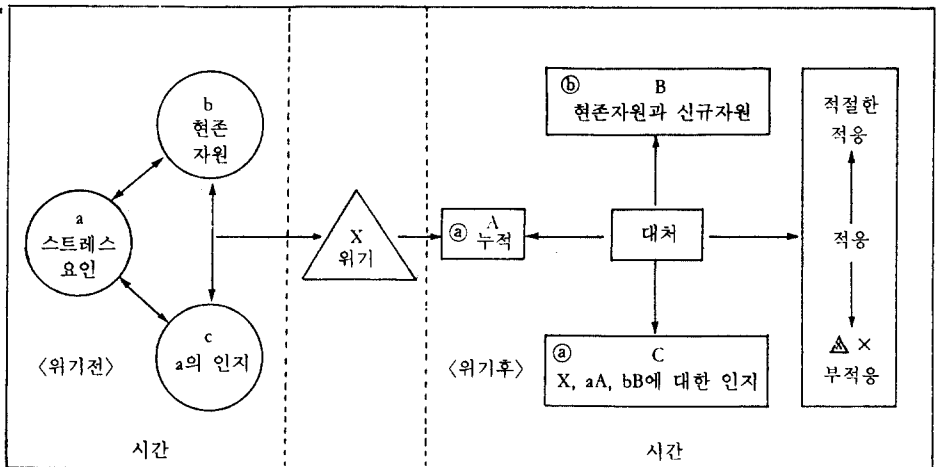
송대현·윤가현(1989)은 노년기 고독의 요인을 ① 활동의 제약, ② 경제적 여유부족 ③ 신체적 건강약화 ④ 배우자의 사망 ⑤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 ⑥ 고우관계의 부족 등을 들었는데 이는 스트레스적 측면



<그림 2> Hill의 ABCX 모델



<그림 3> Bwr의 가족스트레스 모델



<그림 4> McCubbin의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

과 연결되리라 생각한다. 김수연(1988)은 老人의 종교참여도와 사회참여의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밝혀 노인 만족도 요인으로 관련 시켰는데, 이는 또한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스트레스 인지 면과도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규석(1988)은 노인의 사회적 안녕은 사회적 원조망과 경제적·환경적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노인의 스트레스 인지 유무와 사회적 원조망 및 경제적·환경적 상태와의 관련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는 또한 노인이 받는 서비스(가족, 국가, 또는 지역사회 누구에 의해서든 지 간에)가 노인의 안녕에 관계 깊음을 밝혔다. 김태현(1986)의 연구에서 老人의 생활만족도는 교육 정도와 생활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종교를 가진 노인일수록 노년기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생활의 만족·불만족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유무와 관련이 가능하므로, 스트레스 역시 이러한 社會人口學的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박성연등은(1985), 노인이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생활에 만족한다고 밝혀, 만약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만큼 노인들의 심리적 갈등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제 및 서어비스적 욕구가 충족될 때 생활만족도도 향상한다고 하여, 이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를 추측할 수 있으며 건강은 만족도에 직·간접으로 중요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한편 국외연구를 보면 Aizenbery와 Treas(1985)는 가족관계가 노년기 생활에 절대적인 중요 측면임을 밝히고, 우정에 대한 중요성을 그 다음으로 강조하여 이 면에 대한 스트레스 관련 측면을 추측할 수 있다. Cicirelli(1983)는 성인자녀의 애착감정이 老父母에 대한 원조와 미래의 원조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와함께 가족관계 만족·불만족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인지를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다. Schaic(1980)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老人 스스로가 벗어나, 가치 있고 질적 향상의 태도를 가져야 하며,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자신의 에너지 보존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건강과 생활의 질이 스트레스 인지의 관련 요인임을 밝혔다. Markides와 Martin(1979)은 건강과 활

등을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강한 예언 변인으로 밝혔는데,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으로 불만을 가져오고 그것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쌓여갈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건강은 스트레스 인지의 관련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lau(1973)는 건강이 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강한 요인의 하나임을 밝힌 바 있고, Edwards(1973)은 경제적 지위를, 생활만족도의 중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Culter(1973)는 건강과 사회경제적 변인이 생활만족도 영향 변인임을 밝혔다. 여기서 생활만족도는 심리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생활만족도가 낮은, 불만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인지의 관련변인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Aldous와 Hill(1965)은 父母의 의존과 그에 따른 子女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노부모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以上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볼 때 노인의 스트레스 인지 및 관련변인으로 건강, 종교, 노인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경제적인면, 서어비스적인 면, 사회활동 등이 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3.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관련변인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국외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노년학자들은 老人들이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지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의 완충과정으로 사회적 지지에 의한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어(Krause, Neal, 1986) 강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받는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 보다 스트레스의 해로운 효과로부터 고통은 덜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경험적 결과들은 애매하다. 이 원인으로는 노인의 스트레스의 영향변인이 한가지 만이 아니고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Krause와 Tran(1989)은 老人이 받는 스트레스가 종교적 관련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상쇄된다고 밝혀, 종교가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함을 규명하였다. Stenback(1980)은 노년기 자살 원인으로 사회적

인 외에 주로 불만족한 결혼과 자녀와의 부족한 관계가 결정적 요인임을 밝혔다. 여기서 생활의 불만족한 부분 즉, 스트레스에 대해 자살이라는 파국적인 대처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以上的 몇가지 연구를 볼 때 국외연구에서는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사회적 지원체계, 종교, 자살 등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과연 어떠한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선행연구와 관련연구를 토대로 대처방안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Ⅲ.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는 경남지역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3개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男女 老人을 대상으로 유의표집 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373名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測定道具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개인배경 척도, 노인의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 척도이다.

(1) 노인의 스트레스 척도

노인의 스트레스 척도는 Neal Krause & Tran (1989)의 스트레스 척도 문항과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통하여 33문항을 작성한 후 최종사용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노인스트레스의 문항별 내용은, 건강문제 3문항, 소외문제 4문항, 의존충돌 3문항, 의존문제 3문항, 노후생활문제 3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Hamilton I, McCubbin, David H.Olson, and A. S Larsen(1987)의 척도 중, 선정한 일부 문항과 老人과의 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용한 문항은 8문항으로 그내용은 「친척지원」 2문항, 「문제의 재정립」 2문항, 「종교적

도움」 2문항, 「소극적 태도」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 척도

에릭슨 이론(윤진, 1988 : 35-40)에서, 자아존중감은 인생후기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을 각기 변수로 시도하였으며, 척도는 Neal Krause & Tran(1989)의 척도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 3문항, 자기조절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물음으로 “그렇다”가 「1점」 “그저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으로 점수화 시킨다음 전체 점수의 1/2을 기준으로 4.5점 이상이면 「上」의 집단에 4.5점 미만이면 「下」의 집단으로 처리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은 긍정적 물음에 동의하면 「1점」, 동의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한 점수가 「4점」 이상이면 「上」의 집단에 「4점」미만이면 「下」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以上에서 각 척도의 신뢰도*는 스트레스 척도가 .71, 자아존중감 척도가 .60, 자기조절능력 척도가 .63이다.

3. 資料處理

本 研究을 위한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989년 11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는 12월에 실시하였다. 면접방법은 훈련받은 가정관리과 학생들이 직접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체 373부를 분석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산대학교 Spss프로그램과 고려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A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배경과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변인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변량분석, 중회귀 분석, X 검정, DunCan Test를 하였고, 스트레스 영역구분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4. 研究의 제한점

본 연구의 표본추출 방법은 purposive Sampling 방법이며, 측정도구가 표준화 된 것이 아니고, 研究對

象이 경남지역의 3개도시를 中心으로 하였으므로, 일
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대상 老人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1>에
서 나타난 바와같이 연령분포는 Young-old로 볼 수
있는 74세 까지가 전체의 85%이고, old-old에 속하
는 75세 이상의 老人은 15%로 나타나, 대부분 젊은
노인이 많은 경향이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전체의
43.2%, 여자노인이 56.8%로 女子老人이 조금 더 많

IV. 調查結果 및 論議

1. 研究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표 1> 調查對象者의 일반적 특성

(N=373)

배경원인	집단구분	빈 도(%)
연 령	60~64세	100(26.8)
	65~69세	113(30.3)
	70~74세	104(27.9)
	75세 이상	56(15.0)
성 별	남 자	161(43.2)
	여 자	212(56.8)
건강상태	나 췌 다	97(26.0)
	보 통 이 다	209(56.0)
	종 다	67(18.0)
배우자생존유무*	없 다	179(48.5)
	있 다	190(51.5)
교육수준	무 학	106(28.4)
	국 졸(한학포함)	158(42.4)
	중 졸	53(14.2)
	고 졸	56(15.0)
동거형태	혼 자	56(15.0)
	노 인 부 부	85(22.8)
	장남부부 함께	142(38.1)
	딸 부부 함께	25(6.7)
	장남외 아들 함께	39(10.5)
	미 혼 자 녀	26(7.0)
경제수준*	못 산 다	49(13.1)
	보 통 이 다	267(71.6)
	잘 산 다	57(15.3)
종교유무*	없 다	93(25.0)
	있 다	279(75.0)
자 녀 수	2 명 이 내	76(20.4)
	3~4명	206(55.2)
	5 명 이 상	91(24.4)

*배우자 생존유무에서 Missing 4, 종교유무에서 Missing 1개임.

*경제수준은 응답자 스스로 자기보고식 척도임.

고 건강상태*별로는 「보통이다」가 전체의 56%이고 나머지는 「나쁘다」가 26%, 「좋다」가 18%로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로 노인들의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다. 배우자 생존유무는 「있음」이 51.5%, 「없음」이 48.5%로 생존유무가 거의 반반이었으며,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노인의 배우자 「있음」은 67%, 「없음」이 33% 인데 비해, 여자노인은 「있음」이 40%, 「없음」이 60%로 나타나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해 배우자 생존율이 훨씬 낮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은 국졸이 가장 많고 다음이 무학으로,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낮게 나타났고, 동거형태를 보면 「장남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가 38.1%고 가장 많고, 다음이 「노인부부」고 22.8%, 「노인혼자」가 15%고 나타나, 장남과 사는 형태가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이 전체의 1/2보다 적고 「노인부부」나 「노인혼자」의 형태가 큰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대다수이고(71.6%), 「잘산다」가 15.3%, 「못산다」가 13.1%로, 대부분 경제수준은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종교유무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전체의 75%, 갖지 않은 사람이 25%로 전체의 3/4이 종교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3-4명이 전체의 55.2%로 제일 많고 다음이 5명이상으로 24.4%, 2명이 하가 20.4%로 나타났다.

2. 노인들의 스트레스 인지정도 및 영역

노인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의 스트레스가 53.4%, 「하」의 스트레스가 42.8%, 「상」의 스트레스가 3.8%로 나타나 노인들이 「중」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57.2%로,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중간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스트레스 중 어떤영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를 순위화한 결과 <표 3> 같이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노인들의 스트레스는 「건강문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노후생활문제」와 「의견충돌 문제」로, 같은 순위로 말해 질 수 있고, 그 다음이 「의존문제」, 「소외문제」의 순위로 나타났다(P<.001). 즉, 노인들의 스트레스는 「건강문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관련

<표 2> 노인들의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집단	점 수*	빈 도(%)	누적빈도(%)
상	33점~48점	14(3.8)	14(3.8)
중	17점~32점	199(53.4)	213(57.2)
하	0점~16점	160(42.8)	373(100.0)

*점수: 스트레스를 묻는 16문항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한 일이 없으면 0점,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1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를 주었음.

<표 3> 영역별 스트레스의 순위

스트레스 영역	구분	M	순위	Dun can Grouping	F 값
건강문제		1.64	1	A	82.70***
노후생활문제		1.20	2	B	
의견충돌문제		1.09	3	B	
의존문제		0.90	4	C	
소외문제		0.64	5	D	

***P<.001

된 측면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노인들의 스트레스 중에서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일 높다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대책을 일반 가정의 책임으로 돌릴 것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노인들의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나타난 「노후생활문제」는 현재 노인들이 장래의 부양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 사회의 가치관 變化에 따른 노인부양 기피 현상과 관련해서 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가정의 부양대책 만으로 노인의 「노후생활문제」를 떠맡기기 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해 준다. 「의견충돌 문제」 또한 기혼자녀들 과의 동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의 하나로, 이는 윤가현등의 (1989) 연구에서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로 고독감을 지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나, 서병숙(1989)의 연구에서 기혼자녀와의 동거시, 정서적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정서적인 문제점이 관련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네번째 순위로 나타난 「의존문제」는 경제적 무능력과 관계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측면으로는 기혼자녀와의 동거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번째로 나타난 「소외문제」는 노인의 스트레스 영역중에서는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以上에서 노인의 스트레스에 가장 비중이 큰 영역은 「건강문제」로, 이는 최근의 노인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김건열, 1989; 조유향, 1988)가 활발한 경향과 연결해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되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하고,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제도가 정책적으로 뒷받침 될 때 노인들의 스트레스는 훨씬 감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老人들의 스트레스에 影響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分析

老人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표 4.5>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즉, 건강이 나

쁠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노인의 스트레스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특히, 「건강문제」와 「노후생활문제」에서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건강이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서병숙, 1989; 박성연, 1985; Markides, 1979).

노인들의 동거형태는 스트레스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즉, 「혼자사는」 노인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다음이 「딸부부」와 동거할 때, 「장남의 아들」, 「장남부부」, 「노인부부」, 「미혼자녀」와 동거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딸부부」와 「장남의 아들부부」와 살 때가 「장남부부」와 동거할 때 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 가치관에서 아들중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을 현재 노년층 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한 「혼자사는」 노인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연구에서(박미령, 1978; 김행자, 1974),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별거하는 노인보다 소외감을 덜 느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미혼자녀」 또는 「노인부부」만의 형태가, 기타 기혼자녀와의 동거보다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은 오늘날 전통적 효도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노인 부양 의식의 약화로(서병숙, 1986), 기혼자녀들과 동거하면서 부양받는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기혼자녀들과 별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와 관련된 측면으로 해석된다. 즉, 어떤 여건으로 별거하지 못하고 동거할 경우 노인들의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다. 다만, 이 경우 혼자서 사는 노인은 따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영주(1989)등의 연구에서는 기혼자녀와의 동거·별거에 따른 노인의 소외감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혼자사는 노인을 제외하고는 「부부」나 「미혼자녀」와 사는 노인이 다른 기혼자녀와 동거할 때 보다 스트레스가 낮다는 점은 老人들의 동거유형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측면이라 볼 수 있겠다. 즉, 장래의 바람직한 노인부양 형태는 「동거」보다는 「별거」에서의 부양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는 부수되는 여러조건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변량분석

변수	스트레스			긴장부세			소외부세			의심충동부세			의후부세			노후생활부세			신			계
	M	MLS	F값	M	MLS	F값	M	MLS	F값	M	MLS	F값	M	MLS	F값	M	MLS	F값	M	MLS	F값	
인령	60~64세	1.45		0.57			1.22			0.79			1.08			1.03			1.03			
	65~69세	1.64	2.36	0.63	0.70	1.39	1.16	1.52	2.30	0.90	0.70	1.53	1.15	1.53	2.54	1.09	0.34		1.09	0.34	1.54	
	70~74세	1.75		0.62			0.95			0.98			1.25			1.12			1.12			
	75세이상	1.77	***	0.81	1.39	8.87	0.99	2.58	3.92		0.97		1.41		***	1.18			1.18			***
건강 상태	출 다	0.95		0.49	1.39	2.75	1.17			0.78			0.94			0.87			0.87			***
	보통이다	1.58	52.24	0.63	1.39	8.87	1.16	2.58	3.92	0.89	1.25	2.77	1.11	9.82	17.53	1.07	3.83		1.07	3.83	18.65	
	나쁘다	2.25		0.76			0.89			1.03			1.57			1.30			1.30			
	고름이상	1.55		0.40	4.26	8.87	1.22			0.85			1.04			1.01			1.01			
교육 정도	출	1.56		0.48			1.31			0.88			1.21			1.09			1.09			
	중	1.60	1.31	0.59	4.26	8.87	1.04	1.63	2.47	0.87	0.45	0.98	1.23	0.57	0.93	1.07	0.45		1.07	0.45	2.02	
	고	1.78		0.91			0.99			1.00			1.23			1.18			1.18			
	학	1.88		1.12			1.06			0.78			1.72			1.31			1.31			***
봉사 형태	자	1.42		0.54			1.30			0.81			0.89			0.99			0.99			***
	노인부부	1.69	3.12	0.54	3.68	7.86	1.00	1.48	2.26	1.00	1.15	2.56	1.12	5.49	10.11	1.07	0.87		1.07	0.87	4.02	
	장님부부	1.72		0.84			0.82			1.09			1.53			1.20			1.20			
	딸부부	1.78		0.41			1.11			0.98			1.24			1.10			1.10			
경제 수준	장남외아들	1.24		0.61			1.21			0.65			1.12			0.97			0.97			
	미혼자녀	1.33	***	0.50	16.26	38.15	1.24			0.84			1.05			0.99			0.99			***
	참산다	1.64	7.47	0.53	16.26	38.15	1.07	0.79	1.19	0.88	1.02	2.23	1.13	8.36	14.73	1.05	3.68		1.05	3.68	17.84	
	보통이다	2.01		1.40			1.02			1.09			1.74			1.45			1.45			
자녀수	5명이상	1.64		0.59			1.16			0.85			1.10			1.07			1.07			
	3~4명	1.62	0.18	0.58	2.19	4.37	1.11	0.85	1.27	0.94	0.25	0.54	1.18	1.44	2.39	1.08	0.15		1.08	0.15	0.70	
	2명이하	1.69		0.85			0.96			0.88			1.36			1.15			1.15			

*P<.05 **P<.01 ***P<.001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T검정

면수	스트레스 구분	긴장분제			소외분제			의견충돌분제			의존분제			노후생활분제			진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M	S.D	T값
성별	남자	1.56	0.96	-1.32	0.60	0.69	-0.83	1.10	0.82	0.17	0.89	0.70	-0.43	1.14	0.77	-1.14	1.06	0.48	-1.20
	여자	1.69	0.88		0.67	0.73		1.09	0.81		0.92	0.66		1.24	0.78		1.12	0.46	
배우자 유무	유	1.51	0.89	**	0.54	0.65	**	1.28	0.79	**	0.87	0.70	1.02	0.94	0.63	***	1.03	0.44	**
	무	1.79	0.91	2.90	0.74	0.76	2.61	0.89	0.78	-4.74	0.94	0.64		1.47	0.83	6.85	1.17	0.48	2.76
종교	유	1.69	0.93	**	0.62	0.70	1.04	1.04	0.79	**	0.92	0.66	-0.74	1.20	0.79	-0.07	1.09	0.47	0.04
	무	1.47	0.85	-2.08	0.71	0.73		1.25	0.86	2.07	0.86	0.71		1.19	0.73		1.10	0.46	
자아 존중감	上	1.45	0.85	**	0.53	0.66	*	1.12	0.84	0.44	0.79	0.62	**	1.06	0.67	**	0.99	0.37	**
	下	1.75	0.94	-3.01	0.70	0.73	-2.20	1.08	0.80		0.97	0.70	-2.50	1.28	0.82	-2.84	1.16	0.51	-3.57
자기조절 능력	上	1.33	0.85	***	0.48	0.61	***	1.17	0.88	0.47	0.80	0.68	**	0.99	0.70	***	0.94	0.44	***
	下	1.94	0.88	-6.87	0.79	0.77	-4.28	1.07	0.75		1.01	0.66	-2.86	1.41	0.79	-5.31	1.25	0.45	-6.43

*p<.05 **p<.01 ***p<.001

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영역별 스트레스를 보면, 동거형태는 「소외문제」와 「노후생활문제」에서 가장 유의수준이 높고, 다음이 「건강문제」, 「의견충돌문제」, 「의존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제수준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즉,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소외 및 노후생활문제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연구결과들(유영주·박의련, 1989; 박성연·최혜경, 1985)과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배우자 유무는 $P<.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노인의 스트레스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건강, 소외 의견충돌 및 노후생활문제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영주·박의련(1989)의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인의 소외감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老人들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의 영향변인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 보다 건강, 소외 의존 및 노후생활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에릭슨의 인성발달단계와 관련해 볼 때, 노년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자기통합의 측면이 잘 발달됨으로써, 그렇지 못한 老人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일치하며 본 연구결과는 또한 노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

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자기조절능력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여 스트레스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건강, 소외, 의존 및 노후생활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자기조절능력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는 양과 관계가 있으므로 노인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조절능력은 노인의 인적자원의 일부로, 노인이 이런 인적자원의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생교육과 함께 노년기의 통합적 발달은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는 측면이다.

그 밖에 연령, 교육정도, 자녀수, 성별, 종교 등은 스트레스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중 종교유무는 유영주(1989) 등의 연구에서 노인의 심리적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다.

以上에서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인으로는 건강상태, 동거형태, 경제수준, 배우자 유무,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4. 老人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련된 변인의 분석

〈표 6〉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χ^2 검증

(N=373)

변수	스트레스 대처방안		친척지원	문제재정립	종교적도움	소극적태도	χ^2 값
	상	하					
성별	남자	26.95%	27.92%	27.92%	22.62%	22.51%	8.97*
	여자	27.05%	24.92%	24.92%	25.12%	22.91%	
종교	유	26.60%	25.14%	25.14%	26.10%	22.17%	46.24***
	무	28.35%	29.66%	29.66%	17.33%	24.66%	
자아 존중감	상	27.49%	28.42%	28.42%	22.68%	21.40%	12.84**
	하	26.71%	24.86%	24.86%	24.89%	23.55%	
자기조절 능력	상	27.19%	27.49%	27.49%	23.24%	22.07%	6.65*
	하	26.82%	24.93%	24.93%	24.86%	23.40%	

* $P<.05$ ** $P<.01$ *** $P<.001$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성별에서 보면 남자노인들은 「문제 재정립」이 제일 높고, 다음이 「친척지원」 「종교적 도움」 「소극적 태도」로 나타난 반면, 여자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친척지원」이 가장 높고 다음이 「종교적 도움」 「문제 재정립」 「소극적 태도」순으로 나타나 성별간에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다름을 보여준다. X²검증 결과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老人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종교를 가진 노인은, 「친척지원」과 「종교적 도움」이 비슷한 비율로 높고, 다음이 「문제 재정립」, 「소극적 태도」순이며, 종교를 가지지 않은 노인은 「문제 재정립」이 가장 높고 다음이 「친척지원」 「소극적 태도」순이며 「종교적 도움」은 마지막으로 다른 대처방법과 차이가 많이난다. X²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문제 재정립」이 가장 높고 다음이 「친척 지원」 「종교적 도움」 「소극적 태도」순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친척지원」이 가장 높고 다음이 「종교적 도움」 「문제 재정립」 「소극적 태도」순으로 나타나 X²검증결과 두집단에 P<.01 수준에서 유의한 差異가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에 따른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자아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은 「문제 재정립」이 가장 높고, 다음이 「친척지원」 「종교적 도움」 「소극적

태도」순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집단은 「친척지원」이 가장 높고 다음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문제 재정립」 「종교적 도움」 「소극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X²검증 결과 두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男女 성별간에 있어 남자노인은 「문제 재정립」에, 여자노인은 「종교적 도움」에 치우치는 경향이고, 종교유무 별로는, 종교를 가진 노인은 「종교적 도움」에, 종교를 가지지 않은 노인은 「문제 재정립」의 경향이었으며, 자아존중감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문제 재정립」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소극적 태도」에 치우치는 경향이였다. 자기조절능력에 따른 차이는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은 「문제 재정립」에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집단은 「친척지원」에 의지하는 경향이어서, 개인배경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5. 老人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21.1% 설명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1). 그리고 회귀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인(연령, 성별,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동거형태, 경제수준, 종교유무, 자녀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력) 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표 7> 독립변수들간의 회귀분석표

독립변수	종속변수: 노인들의 스트레스	F 값
건강상태	-0.162(-0.224)***	32.79***
자아존중감	-0.161(-0.161)***	
자기조절능력	-0.365(0.258)***	
Constant	2.249	
R ²	.211	

***P<.001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자기조절능력,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능력이 클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스트레스는 낮아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는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의 건강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년기 발달과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노인의 재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V. 結論 및 提言

본 연구 목적은 첫째, 노인들의 스트레스 정도 및 영역을 알아보고 둘째,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 규명,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차이, 넷째,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중(53.4%), 하(42.8%), 상(3.8%) 순으로 과반수 이상의 노인이 「중」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역별로 보면 「건강문제」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이 「노후생활문제」와 「의견충돌문제」 다음이 「의문문제」, 「소외문제」 순으로 나타나 「건강문제」가 노인의 스트레스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밝혀졌다.

둘째,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는 건강상태($P<.001$), 동거형태($P<.001$), 경제수준($P<.001$), 배우자 유무($P<.01$), 자아존중감($P<.001$), 자기조절능력($P<.001$) 등으로 밝혀졌다.

셋째, 노인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성별($P<.05$), 종교($P<.001$), 자아존중감($P<.01$), 자기조절능력($P<.05$) 등으로 밝혀졌다.

넷째,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변인은 자기조절능력,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21.1%였다($P<.001$).

以上的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동거형태에 대한 모델개발이 필요하며, 「별거부양」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재혼에 대한 편견을 없게하여, 노인들의 고독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인과 기혼자녀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셋째, 노인의 자아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노인교육의 확대실시 방안이 필요하며,

넷째, 노인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서서비스적 의료혜택의 제도적 보완이 급히 요청되며, 아울러 노인들의 노후생활대책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3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척도사용도 제한적 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심층적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 최근인구동태 현황및 신인구 추계결과, 1988.
- 2) 김건열, 「老人질환의 추새와 대책」, 1989년 한국노년학회 추계발표회 pp9-11.
- 3) 김수연, 「노인 종교참여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8집, 1988. pp.55-68.
- 4) 김양희, 전세경,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권 1호. 1989, pp.25-42.
- 5) 김태현,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제23집. 1986.pp.182-200.
- 6) 김행자, 「서울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4권 2호, 1974.
- 7) 박미령, 「가족내 노인의 역할과 소외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8.
- 8) 박성연, 최혜경,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3권 1호, 1985. pp.71-85.
- 9) 서병숙,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2호, 1989. pp.133-147.
- 10) 서병숙,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호, 1986.
- 11) 성규석, 김근식, 「노인들의 安寧에 관한 조사연구」

- 구”, 한국노년학 제8집, 1988, pp.69-88.
- 12) 송대현, 윤가현, “노년기의 고독감”, 1989년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p.53-69.
 - 13) 옥선화, 정민자,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권 1호, 1984, pp.79-92.
 - 14) 유명주, 박의련,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7권 2호, 1989, pp.199-212.
 - 15)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1988, pp.35-40.
 - 16) 이가옥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문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 1989, pp.17-21.
 - 17) 조유향, :“老人에 대한 보건의료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제8집, 1988,pp.107-119.
 - 18) Aldous J. & Hill R., “social cohesion, lineage typ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social forces 43 may, 1965, pp.471-482.
 - 19) Asser Stenback, “suicidal behavior in old age” In J. E. Birren & R. B. Sloare(eds.), Handbook of mental health and age. Englewood cliffes, N. J.: Prentice-hall, 1980, pp.637-652.
 - 20) Blau, old age in a changing society, N. Y.:New view point, 1973.
 - 21) Culter S. J.,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a cationary research note”, J. of gerontology. 1973, vol. 28, pp. 96-100.
 - 22) Edwards J. N. & Klemmack D. 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A reexamination ” J. of gerontology, 1973, vol. 28, pp. 497-502.
 - 23) Hamilton and McCubbin, “Integrating coping behaviors in family stress theor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9.
 - 24) Hamilton I. McCubbin. Dabid H. Olson, & Andrea S. Larsen “Family crisis-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by Norman Fredmn, Handbook of Measurements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 py, N. Y., 1987, pp. 199-203.
 - 25) Hill r.,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Social Casework, vol, 49, 1958, pp. 135-150.
 - 26) Krause Neal,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 of Gerontology, vol, 41, 1986.
 - 27) K. S. Markides & H. W. Martin,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ly”, J. of Gerontology, vol. 34, 1979, pp. 86-93.
 - 28) Krause & T. V. Tran, “Stress and Religious involvement among older blacks”, J.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44, 1989, pp. s4-s13.
 - 29) K. Warener Schaie, “America’s elderly in the coming decade”, Invited adress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hospital social work directors. Denver, colorado, august, 1980, pp. 3-11.
 - 30) McCubbin, Hill C. Joy, A. E. Couble, J. Comeau, J. M. Patterson and R. Needle, “Family stress and coping:A decade review”,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11, 1980, pp. 127-131.
 - 31) McCubbin H., J. M. Patterson “The Family str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marriage and family review”, social stress and the family(eds.), N. Y.:the haworth press, 1983, 재인용, 김양희, 전세경, 전계논문, 189, pp. 28-29.
 - 32) Rhonda Aizenberg & Judith Trease, “the family in late life:Psychosocial and demographic consid-erations” Handbook of the psychology, van nostrand reinhall com., 1985, pp. 169-185.
 - 33) V. G. CiCiRelli,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a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A path mod- el”, J. of Marraige and the Family, Nov., 1983, pp. 815-823.